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세상에 있을 때 일생 동안 기도만 해 주며 살다간 자들은, 그 영이 천국 중에서도 ‘기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산다. 이들은 세상에 살 때 일생 동안 생명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민족과 세계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함께하게 해 준 자들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다르다.
3.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같이 행하는 것’이다.
4. 일을 시키는 감독과 같이 이야기를 하여 생각이 하나 되면, 그에 맞는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일체 되어 삼위가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게 된다.
5. <기도>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정신과 마음이 맑아지고, 육신도 깨끗하게 된다.
6. 응답 없는 기도라도 계속하여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꿈으로나 만물로 늘 대답해 주신다. 오래 지속해서 기도하여라.
7.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때 먹는 양식같이 절대 필요하고, <기도>는 사람이 살아갈 때 호흡하는 것같이 절대 필요하다. 또 때

일 배설물을 배설하는 것만큼 필요하다. 고로 ‘매일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8. 절대적인 것은 절대 해야 된다.

9.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면, 누가 안 시켜도 매일 운동한다. 기도도 좋아하는 자는 매일 하게 된다.

10.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배워야 안다.

11.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했는데도 원하는 것이 안 됐으나, ‘기도’를 하니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그러하다. <기도>해야 ‘줄 것’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된다.

12. 어느 때는 기도하기보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13.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응답을 안 하시고 단상에서 사명자나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기도 하신다.

14. 간절하게, 꼭 사정을 이야기하며 간구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신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태도를 보시고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고 감동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15.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모든 내용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재어보고 행하신다. 고로 ‘기도의 내용과 사연’이 충분해야 된다.
16. 평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께 잘하다가 기도해야,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
17. <간절한 기도>는 천사가 기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외식과 형식의 기도>는 아예 기도 그릇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18.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
19. 하나님은 육계와 영계를 절대적인 상대세계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계에서의 인간 행위의 반응을 영계에서 그대로 보이신다.
20. 사람끼리도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도 기도를 안 하면 멀어진다.
21.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자기가 말을 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22. 지구 세상 여기저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시대 복음을 전해줄 수도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하자.

23. 만날 수도 없고, 말로도 안 통하는 처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께 기도하여라.
24.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아라.
25. 자기 것도 이웃과 형제의 것도 민족의 것도 세계의 것도 모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어 행하신다.
2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낮게 대해 주신다. 그러므로 통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게만 생각하지 말고 대하여라.
27. 하나님은 인간이 수준이 아주 낮고,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것을 아신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좋게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대해 주신다.
28.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향한 목적이 있으시어 그 목적을 위해 버리지 않으신다. 이를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께 몸도 마음도 맡기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야 된다. 사탄의 것이나 불신자의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
29.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30.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옥문을 열고 떨어질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기회를 주신다. 이를 깨닫고 마음도 몸도 불태워서 진정으로 대하여라.
31. 기도 후에, 마음속에 조용히 성령으로 감동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해준다.
32. 그동안 한다고 했어도 못 한 것이 정말 많아서 죄송하다고 깊이 기도하니, “네 마음 알았다.” 하시기에, 이제 죽도록 하겠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말하니, “나 여호와가 함께해야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다. 이에 진정 감사하다고 하니, “나 여호와가 같이 하도록 진정으로 기도하고 행해라.”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모두 나와 같이 행하도록 이 말을 전해준다.
33. 구원도 휴거도 귀하게 여기고, 매일 기뻐하며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 살도록 간구해라. 올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라고 하셨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각자 새롭게 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